

아동소설집

민이의 산

최동일 지

연변인민출판사

▷아동소설집◁

민이의 산

최동일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영철

책임교정: 최순란

삽 화: 정 란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小敏的山: 朝鲜文 / 崔东日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5

ISBN 978-7-5449-0285-4

I. 小… II. 崔… III. ①儿童文学-中篇小说-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②儿童文学-短篇小说-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87. 4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68301号

小敏的山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9.875 字数: 18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285-4 (民文)

版次: 2008年5月第1版

2008年5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1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작가의 눈으로 본 생동한 삶의 현장

최문섭

최동일선생은 우리 아동문학분야에서 중견작가의 한 사람으로 주목받으며 최근에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독자들의 이목을 한몸에 모으고있다. 지난해 그는 짧디짧은 몇달동안에 중편소설 “선녀를 찾아주세요”와 장편소설 《천사는 웃는다》를 련이어 내놓아 문단을 놀래우더니 금년에는 또 아동소설집 《민이의 산》을 들고나왔다.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이 실로 그는 중견작가의 패기로 넘치는 창작력을 과시하고있다.

그는 평소에 조용히 웃으면서 말없이 일 잘하는 스타일로 우리앞에 다가선다. 그는 오랜 기간 방송인으로, 텔레비존방송국 청소년부 주임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편집진을 이끌고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프로제작에 동분서주하다나니 창작의 여가를 타기 힘



들었었다.

지난해부터 그는 연변작가협회 아동문학창작위원회의 주임, 연변인민출판사 문예부 주임의 중임을 짊어지고 무거운 사명감으로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때를 만나 분출하는 화산마냥 자기의 창작저력을 한껏 뽐내고있다.

그의 소설작품에는 어린이들의 현실생활이 진한 바탕으로 깔려있다.

아동소설 “정말 싫다”에서는 소학교에서의 마지막 6.1절을 파출소에서 보낸 빈이의 가슴아픈 형상을 보여주고있다. 어머니가 한국으로 일하러 간후 빈이의 아홉살 하늘은 외로움의 하늘이었다. 6.1절날, “우에서” 오는 “손님”때문에 아버지는 해마다 빈이와 약속한 공원놀이도 가지 않는다. 하여 빈이는 번마다 PC방에서 6.1절을 보낸다. 5년후 어머니가 한국에서 돌아왔지만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다툼으로 가정불화는 점점 커만 간다. 그 싸움은 나중에 “빈이가 아니며는...” 하는데로 돌아간다. (내가 아니면 저들이 어떻게 살건데, 내가 없으면 저들은 시름이 놓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빈이는 6.1절날 아버지 어머니가 싸움하고 집을 나간후 마침내 가출을 한다. 하지만 빈이는 역전 매표구앞에서 웬 아이



와 싸움질을 한것으로 파출소에련행된다. 이 소설에서 작자는 출국붐으로 하여 야기되는 가정불화, 그 불화속에서 고독과 외로움에 모대기는 불쌍한 아이들, 그 희생양들의 심리갈등과 생활현황을 파헤치고있다.

중편소설 “보금자리”에서는 주인을 잃고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강아지를 보살펴주는 두 아이-혁이와 예림이가 우리앞에 나타난다. 4살 때 외국에 돈벌러 간 아버지가 일찍 죽고 엄마까지 한국에 나가다보니 이집저집 옮겨앉으며 살아야 하는 혁이는 “세상에 제일 좋은 아빠가 되는것이 소원”이고 이붓 어머니- “불여우”의 슬하에서 자라는 예림이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로 되는것이 소원이라 한다. 이들은 합심하여 강아지에게 새 주인을 찾아주어 행복하게 살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기들만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찾은듯한 기분에 잠긴다.

이 작품에서 작자는 생생한 예술화폭으로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마냥 친혈육의 따스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손가정 어린이들의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 그들의 고민과 방황, 이로 인해 속출되는 사회문제 등을 고발하면서 온 사회가 그들에게 따사로운 정을 보내주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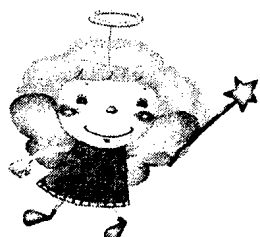
이상으로 책에 수록된 작품 일부를 소개하면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어린이들과 존경하는 학부모들께서 이 책을 참답게 읽어볼것을 권장하는바이다. 삶의 현실은 누구도 회피할수 없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의 삶을 정시하고 작중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자기를 찾게 될것이고 마음가짐이 정리될것이다.

나는 이같이 훌륭한 작품집을 펴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선물한 최동일선생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질 좋은 작품을 써낼것을 기대한다.

2008년 4월 2일

[차 계]

민이의 산	1
정말 싫다	19
진달래꽃 필 때까지	43
울고있는 별	57
나의 동생	81
울바자	93
산신령	107
“백조”와 부체육위원	121
아버지는 장사를 합니다	149
금쪽같은 내 새끼	169
보금자리	199
카네이션기행	251
후기	303



김이의 산

민이는 못박힌듯 선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뒤모습
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민이는 알것 같았다.

그랬다.

아버지는 산이 아니었다.

자기를 믿고 이 세상에 온 자기의 자식을 위해
산처럼 살려고 애쓰시는 너무도 평범한 아버지일뿐
이었다.



“세상에선 엄마가 좋아, 엄마 있는 아이는 보배 같아요.”

밤에 들으면 더욱 심란해지는 노래이다. 하지만 초인종은 민이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음산하게 울어댔다.

(아니, 오늘은 일찍 돌아오셨네. 취재가 일찍 끝나셨나?)

민이는 반신반의하며 출입문가로 달려가 투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2층에 사는 친구 삼수가 헤벌쭙 웃으며 서있었다.

(그럼 그렇겠지...)

아버지는 아침에 훈춘으로 취재를 간다고 하셨던 것이다. 이런 날엔 의례 귀가가 열시를 넘기는 법이여서 인젠 응당 그러려니 하는 민이었다.

(자식, 이 밤중에 웬 일이야?)

민이는 출입문 맞은편 벽에 걸어놓은 시계를 흘끔 쳐다보며 건성으로 문을 열고 말했다.

“임마, 이 밤중에 웬 동네돌이야? 넌 시간개념도 없니?”



“히히히… 우리는 다 한전호숙의 전우가 아니냐? 그냥 한번 봐줘라.”

삼수는 사람좋게 웃으며 끝신을 바꿔신고 민이보다 먼저 객실로 들어가며 너스레를 떨었다.

“내 이럴줄 알았지. 너네 집 큰 동지가 벌써 왔을리 있나?”

삼수는 평소 아버지가 마땅치 않게 느껴질 때면 아버지를 “큰 동지”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 민이는 그러한 삼수가 얄미워서 한소리 높였다.

“임마, 큰 동지가 안 왔으면 작은 동지가 집을 지켜야지. 너까지 동네돌이를 하면 집은 어떻게 하니? 사람질 좀 해주라, 이 자식아.”

“피이, 너 오늘은 잘못 맞춘거야, 오늘은 우리 집 큰 동지가 오지 않은게 아니라 하나를 더 달구 왔다는거다.”

삼수는 쏘파에 덜렁 들어앉으며 괴상한 목소리로 신비하게 말끝을 맺었다. 그것이 이상스럽게 생각되어 민이는 삼수쪽으로 한발 다가서며 물었다.

“하나를 더 달구 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차~ 이번엔 진짜 죽이더라. 우리 아빠보다 아마 10살은 어릴걸…”

“얌마, 점점 한다는 소리가… 도대체 뭐야?”



“나의 이붓엄마라 해야 하는가? 아니지, 멋있는 말로 나의 준계모라구 해야지. 그것도 아니다. 우리 아빠 애인이라고 해야 정확할걸... 하하하하...”

주어섬기는 삼수의 목소리는 때에 맞지 않게 크게 들리고있었다.

“미친놈이, 그것도 자랑이라고 떠벌이고 다니니?”

하지만 삼수는 민이가 못마땅해하든말든 계속 말끈을 풀어헤쳤다.

“다 쓸데없는짓이야, 인젠 팬찮아. 우리 아빠, 벌써 몇번째야? 예잇, 오늘은 자리를 비켜준 값으로 50원을 벌었다. 너네 아버지가 오기전에 우리 양튀첼(양고기첼)이나 답새길가?”

“자식, 뭐 우리 아버지도 너네 아버지하구 같은가 하니? 우리 아버진 아니야. 아니란 말이다.”

민이는 삼수에게 어깨를 으쓱해보이며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자 삼수는 모든것이 귀찮다는듯 리모컨으로 이 채널 저 채널 돌려보며 부산스럽게 지껄여댔다.

“세상이 어찌자구 이러는지... 엄마라는건 돈 벌겠다구 외국가서 해매구... 아빠라는건 제 좋겠다구 녀자들이나 친하구... 난 뭐 하면 좋을가?”

민이는 망가져가는 삼수의 꼴을 쏘아보며 이마살



을 찌프렸다. 사실 삼수에게서 이런 소리를 들은 것도 한두번이 아닌지라 별로 신비할것까지는 없지만 어쩐지 삼수를 돌보지 않고 늘 밖에서 돈다는 삼수의 아버지가 얄미워지고 그러는 아버지에게 반항심을 가지고 하루 새롭게 비뚤어져가는 삼수의 모습이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삼수가 밉다가도 어딘가 또 통하는듯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이만큼 민이에게도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었던것이다.

5년전 민이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리혼을 결정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 나이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째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수가 없었지만 눈물을 뿌리며 떠나가는 어머니를 바라면서 엉엉 소리내여 울던 정경만은 지금도 눈앞에 새롭다. 그날 그후로 민이는 아버지와 둘이서 생활을 하고있었다.

민이의 아버지도 열여섯살 때 부모님을 다 여윈 분이라 민이는 평소에 어디로 갈 곳도 없었다. 전에 종종 다니던 외가집도 어머니가 없으니 발길이 돌려지지 않았던것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것은 아버지가 사업의 여가에 특별히도 민이를 잘 챙겨주는것이였다. 하지만 기사사업을 하시는 민이의 아버지는 평소에 출장이 잦은편이라 저녁시간에 늦게 돌아오는것은 보통일이고 하루, 이틀 밤을 새우는것도 이



젠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만큼 민이도 차츰 자기 집의 생활리듬에 길들여지고있었고 그나마 평소에 자기를 위해 로심초사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것이 다행으로 생각될 때가 많았다.

(그래, 나도 14살인데 뭐, 다 컸지. 무서울것도 없구... 일에 바쁜 아빠만 바라볼수 없는것이 아닌가?)

민이는 가끔 이렇게 자신을 단속하며 나름대로 아버지를 돕느라 애를 쓰기도 했다. 이만치 험이 든 민인지라 2층에 사는 친구 삼수의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많았다. 사실 삼수의 처지는 민이보다 낫다면 낫다고도 할수 있었다. 삼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리혼한것도 아니고 그저 삼수의 어머니가 한 국으로 나간지 6년 철을 잡고있을뿐이었다. 그리고 삼수의 할머니가 늘 삼수네 집에 와서 집안일을 거들어주시군 했다. 그렇게라도 믿을데가 있어서인지 삼수의 아버지는 늘 밖으로 돌고 삼수는 그것이 미워서 늘 아버지와 맞서는것이였다.

“임마, 여기서 이러구 있지 말구 이젠 집에 가봐라!”

민이는 왼쪽발로 삼수의 엉덩이를 툭 차며 재촉했다.

“싫어, 그 여자, 아직 안갔을거야.”



“그럼? 안 가면 너 오늘 여기서 잘거야? 그러지 말고 돌아가서 아빠께 말씀드려. 이젠 잘 때가 됐구. 벌써 아홉시가 지났잖아.”

“말해서 들으면 좋지. 쳇, 너도 너무 너의 아빠를 믿지 마라. 아빠들이란 다 그런거야, 늑대들이라구.”

“자식, 우리 아빠가 어떻다는거야? 말끝마다 령 감처럼...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점잖구, 또 제일 맘씨 곱구, 젤 열심히 살아가는분이야.”

“놀구있네... 여기서도 맘 편히 살수가 없구려. 후~ 이 피곤한 나의 령혼이여!”

삼수는 손에 쥐고있던 리모컨을 덜렁 쏘파우에 뿌려던지고 두팔을 벌려 으윽 기지개를 켜다.

“그래, 갈란다. 가야지. 넌 너네 점잖구, 맘씨 곱구, 열심히 살아가는 아빠를 기다리며 바람벽이나 쳐다봐라. 오~ 불쌍한 나의 령혼이여, 구경 어디로 가야 하나이까...”

민이는 노래조로 흥얼거리며 출입문가로 걸어가는 삼수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임마, 곱게곱게 집에 들어가라. 밖에서 돌지 말구.”

“그래 알았나이다.”

소리와 함께 “탕!” 하고 문닫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